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8 주차 (롬 2:21-3:4)  
(2017년 2월 26일 - 2017년 3월 4일)  
(제5권 8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8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7 년 2 월 26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율법주의자들의 착각 (주일)

### 오늘의 본문 (롬2:21-24)

- <sup>21</sup> ὁ οὖν διδάσκων ἕτερον σεαυτὸν οὐ διδάσκεις; (그런데 타인을 가르치는 당신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ὁ κηρύσσων μὴ κλέπτειν κλέπτεις; (도적질하지 말라 설파하는 당신이 도적질하느냐?)  
<sup>22</sup> ὁ λέγων μὴ μοιχεύειν μοιχεύεις;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당신이 간음하느냐?)  
ὁ βδελυσσόμενος τὰ εἰδῶλα ἱεροσυλεῖς; (우상을 싫어하는 당신이 신사의 물건을 훔치느냐?)  
<sup>23</sup> ὡς ἐν νόμῳ καυχᾶσαι, (당신은 율법으로 자랑한다)  
διὰ τῆς παραβάσεως τοῦ νόμου τὸν θεὸν ἀτιμιάζεις;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다.)  
<sup>24</sup> τὸ γὰρ ὄνομα τοῦ θεοῦ δι' ὑμᾶς βλασφημεῖται ἐν τοῖς ἔθνεσιν,  
(왜냐하면 당신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언행일치(言行一致)라는 말이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교행일치(敎行一致). 지행일치(知行一致), 신행일치(信行一致)라는 말도 함께 쓰인다.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 자신의 이는 바대로 행동해야 하며, 자신이 믿는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말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이유는 이는 대로 실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또 다른 문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옳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진리나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신념으로 공동체를 망친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도 많이 배우고 있다. 2 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자기의 신념 하나로 독일 전체를 잘못된 길로 끌고갔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만행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 대학살은 인류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엄청난 잘못이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시 독일 기독교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당시 기독교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초대 교회 교인들을 박해한 유대인들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을 학살할 성경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만들어 제시하기까지 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류사에 역행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밀었다.

타인들을 가르치는 당신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고 질타하는 바울의 이 질문은 얼핏 '너나 잘하세요!'라는 뜻으로 시니컬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려는 대상은 이방인이다.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기본이고 할례까지 받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초대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들과는 다르게 가르쳤다.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아도 되며, 그리스도만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는 바울이 그들 눈에는 종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공의 적으로 보였다. 지금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 즉,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들이지 않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교적 유전만 계속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따라서 정작 배워야 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 역시도 이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들처럼 유대 전통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고백하고 있다.

“<sup>43</sup>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sup>44</sup>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3-14).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근거는 바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대 전통이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알았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도 그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형식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정작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내용은 등한시 여겼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에 가장 심한 갈등을 보인 것은 안식일 문제였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 년된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도 깨끗하게 낮게 하셨다. 게다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도록 방치해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병자를 고칠 수도 있었을텐데 왜 하필 굳이 유대인들이 그처럼 철저하게 지키려 하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신 걸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껌데기만 남아 있는 율법,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율법의 정신은 도외시한 채 그것으로 자신들의 도덕적, 종교적 우월성을 내세우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자 하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셨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심으로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각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당연히 살아가는 방식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유독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만 강조해 가르치다보니 정작 용서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는가? 예수님은 죄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 용서란 앞으로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받고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행위다. 그런데 정작 오늘날의 대다수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들을 인간들이 애써 배척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도 많다. 그리고 그것이 장로의 유전처럼 돼버린지 오래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정작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 누구한테도 타인들의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대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명하셨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몫이다. 지금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선언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외모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조건적인 용서인가요 무조건적인 용서인가요?

## 진정한 율법의 정신 (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롬2:21-24)

- <sup>21</sup> ὁ οὖν διδάσκων ἕτερον σεαυτὸν οὐ διδάσκεις; (그런데 타인을 가르치는 당신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ὁ κηρύσσων μὴ κλέπτειν κλέπτεις; (도적질하지 말라 설파하는 당신이 도적질하느냐?)  
<sup>22</sup> ὁ λέγων μὴ μοιχεύειν μοιχεύεις;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당신이 간음하느냐?)  
ὁ βδελυσσόμενος τὰ εἰδῶλα ἱεροσυλεῖς; (우상을 싫어하는 당신이 신사의 물건을 훔치느냐?)  
<sup>23</sup> ὡς ἐν νόμῳ καυχᾶσαι, (당신은 율법으로 자랑한다)  
διὰ τῆς παραβάσεως τοῦ νόμου τὸν θεὸν ἀτιμιάζεις;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다.)  
<sup>24</sup> τὸ γὰρ ὄνομα τοῦ θεοῦ δι' ὑμᾶς βλασφημεῖται ἐν τοῖς ἔθνεσιν,  
(왜냐하면, 당신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적 삶을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라는 세 가지 예를 들어 비판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다고 질타한다. 바울의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중지하라는 의미로 들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스라엘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 자부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율법을 제시했다. 그들은 율법에 정한 대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할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가려 먹었고, 사람도 가려서 만났으며, 부정한 장소에 가는 것도 꺼렸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경건함과 의로움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달랐던 모양이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다. 율법을 가졌음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율법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건건 남들에게 율법을 들이댔다. 그들에게 율법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아닌 정죄와 비판의 도구였고, 특히나 이방인들에게는 차별의 수단일 뿐이었다.

이처럼 율법을 자랑하는 이들이 비난을 받은 것은 예수님 당시에 마찬가지였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결국에 로마 총독에게 넘겨진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유출병이 있는 사람, 전염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하고 소외시켰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 그날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의 눈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안식일에 38년된 병자를 고친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 5:16 참조).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을 더 중시했다. 그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거룩과 의를 겉으로 보여주는 데만 급급했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고귀한 정신은 철저히 무시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원색적인 언어를 사용해 폭로하셨다. 그 중 일부를 들어 보자.

“<sup>43</sup>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중략)...<sup>16</sup> 화 있을찐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나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찌라 하는도다...(중략)...<sup>23</sup>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중략)...<sup>25</sup>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중략)...<sup>27</sup>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sup>28</sup>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 23:13-28).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율법을 버리고 각자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는데 사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들은 율법 앞에 설 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함을 표방하는 율법 앞에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내어 자신들의 선과 의를 드러내려 했다. 율법의 엄중함과 완전함에 비추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실제로는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그 율법의 원천인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들은 율법을 그들의 외모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성전에서 기도한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삶은 의로웠지만 실제로 그들이 은밀하게 한 일들은 모두 불법이었고 불의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율법은 그들과 타인들을 차별화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성경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랬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귀신들린 사람들, 문둥병자들, 앓은뱅이와 맹인들,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까지...그들에게 있어 율법은 절망이고 울무였다. 반대로 율법이 명예요 자랑인 사람들이 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을 정도니 말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폭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유대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율법 그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들어간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고 용서고 관용이다. 타인이든 자신이든 그것으로 잘못을 들추어내서 정죄하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게 아니다. 그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의를 평가하여 서로 비교해 보라고 주신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타인이 사랑을 베푸는지 아닌지 상관 말고 오직 자기 자신만 돌아보아 남들을 용서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 율법은 타인을 정죄하는 회초리도 아니고 자기의 의를 치장하는 화장품도 아니다. 율법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율법에 담긴 진정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진정한 할례자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2:25-29)

- <sup>25</sup> Περιτομή μὲν γὰρ ὠφελεῖ (사실 할례는 유익하다)  
ἐὰν νόμον πράσσης (당신이 율법을 행하는 한)  
ἐὰν δὲ παραβάτης νόμου ᾖς (그러나 당신이 율법을 범한 자라면)  
ἡ περιτομή σου ἀκροβυστία γέγονεν. (당신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 <sup>26</sup> ἐὰν οὖν ἡ ἀκροβυστία τὰ δικαιώματα τοῦ νόμου φυλάσσει,  
(그런데 만약 무할례자가 율법의 정한 것을 준수하면)  
οὐχ ἡ ἀκροβυστία αὐτοῦ εἰς περιτομὴν λογισθήσεται;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길 것 아니냐?)
- <sup>27</sup> καὶ κρινεῖ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  
ἡ ἐκ φύσεως ἀκροβυστία τὸν νόμον τελοῦσα (원래 무할례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σὲ τὸν διὰ γράμματος καὶ περιτομῆς παραβάτην νόμου. (율법의 기록과 할례로 율법을 범하는 [당신을])
- <sup>28</sup> οὐ γὰρ ὁ ἐν τῷ φανερῷ Ἰουδαῖός ἐστιν (왜냐하면 밖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οὐδὲ ἡ ἐν τῷ φανερῷ ἐν σαρκὶ περιτομή. (육체에 보이도록 하는 할례가 [할례는] 아니다)
- <sup>29</sup> ἀλλ' ὁ ἐν τῷ κρυπτῷ Ἰουδαῖος, (반대로 숨겨진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καὶ περιτομή καρδίας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고])  
ἐν πνεύματι οὐ γράμματος,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οὐ ὁ ἔπαινος οὐκ ἐξ ἀνθρώπων (인정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ἀλλ' ἐκ τοῦ θεοῦ.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할례는 언약의 표시다.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핵심 내용 중 하나가 후손 문제인데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 불임인 아내를 데리고 사는 아브람에게 후손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75 세부터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그에 관한 기록의 대부분은 자식 문제였다. 그의 나이 99 세, 그의 아내 사라가 89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약속하셨다. 내년 이맘 때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이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긴 지 오래되었고, 아브라함도 자포자기한 상태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다. 당사자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인간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 아닌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86 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다. 비록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지만 말이다. 일부다처제가 자연스러웠던 당시로서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는 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아내를 넷이나 두었는데 그 중 둘째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삼았다.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기를 포기하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 다시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시면서 뜬금없이 할례 이야기를 꺼내신다.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들어보자.

<sup>49</sup>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sup>10</sup> 너희 중 남자

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sup>11</sup>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sup>12</sup>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지 팔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sup>13</sup>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sup>14</sup>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창 17:9-14).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올이고 아브라함이 갑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이행도 스스로 하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할례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징표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그 수혜자인 인간의 몸에 새겨두신 게 할례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청구권을 인간이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일종의 권리증서인 셈이다.

그런데 이 권리증서가 모세 율법에서는 마치 쌍방계약처럼 변질돼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그것을 행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할례를 한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 변질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전적인 은혜의 상징이었던 할례가 시내산 율법을 거치면서 도리어 율법의 무거운 요구를 지켜내야만 하는 일종의 노예 낙관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받은 백성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할례는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짓는 가장 분명한 육체의 흔적이다. 한때 헬라 제국이 유대 지방을 점령하고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폈을 때 유대인들 중에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 재수술을 받아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바울은 지금 할례를 반대하거나 유대인들을 비난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할례라는 걸로 드러나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을 질타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 할례가 담고있는 율법의 정신도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닌가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강조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손쉬운 표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삶에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담고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밖으로 드러나는 십자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용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할례받은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할례받은 자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신에게 그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2:25-29)

- <sup>25</sup> Περιτομή μὲν γὰρ ὠφελεῖ (사실 할례는 유익하다)  
ἐὰν νόμον πράσσης (당신이 율법을 행하는 한)  
ἐὰν δὲ παραβάτης νόμου ᾖς (그러나 당신이 율법을 범한 자라면)  
ἢ περιτομή σου ἀκροβυστία γέγονεν. (당신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 <sup>26</sup> ἐὰν οὖν ἢ ἀκροβυστία τὰ δικαιώματα τοῦ νόμου φυλάσσης,  
(그런데 만약 무할례자가 율법의 정한 것을 준수하면)  
οὐχ ἢ ἀκροβυστία αὐτοῦ εἰς περιτομὴν λογισθήσεται;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길 것 아니냐?)
- <sup>27</sup> καὶ κρινεῖ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  
ἢ ἐκ φύσεως ἀκροβυστία τὸν νόμον τελοῦσα (원래 무할례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σὲ τὸν διὰ γράμματος καὶ περιτομῆς παραβάτην νόμου. (율법의 기록과 할례로 율법을 범하는 [당신을])
- <sup>28</sup> οὐ γὰρ ὁ ἐν τῷ φανερῷ Ἰουδαῖός ἐστιν (왜냐하면 밖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οὐδὲ ἢ ἐν τῷ φανερῷ ἐν σαρκὶ περιτομή. (육체에 보이도록 하는 할례가 [할례는] 아니다)
- <sup>29</sup> ἀλλ' ὁ ἐν τῷ κρυπτῷ Ἰουδαῖος, (반대로 숨겨진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καὶ περιτομή καρδίας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고])  
ἐν πνεύματι οὐ γράμματι,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οὐ ὁ ἔπαινος οὐκ ἐξ ἀνθρώπων (인정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ἀλλ' ἐκ τοῦ θεοῦ.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밖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육체로 보이도록 하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은 간단 명료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할례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할례는 인간이 칼을 날카롭게 만들어 포피를 베는 것, 그래서 육체에 흔적을 남기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할례를 행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남자들의 포피를 직접 자르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할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영원하다. 그렇기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며 율법 조문을 따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인정하는 것 역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다. 에베소서 1장 11절~14절을 읽어보자.

“<sup>11</sup>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sup>12</sup>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sup>13</sup>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sup>14</sup>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1-14).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삼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는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됨을 약속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게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셨다. 14 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라고 말하고 있다. 약속의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는 없다. 여전히 욕망의 지배를 받고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을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욕심도 없어지고 질투심도 없어지며 분노도 사라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 중의 착각이다. 물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일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의 희노애락에 부대끼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마도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나?’며 항변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아는가? 이런 항변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과응보의 하나님, 조그마한 죄에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런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마구잡이로 세상을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선하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는 어떤 특별한 상을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욕심을 내다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숨을 데도 없어 만신창이로 군중들 앞에 발가벗겨질 때도 있다. 끝없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몸둘 바를 모르고 엎드려 있는 바로 그때,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지막히 들려오는 성령님의 속삭임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도하게 되겠는가?

“괜찮아...너무 힘들어 하지마...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하지 않고, 벌거벗었을 때 덮어주고, 지쳐 있을 때 어깨를 내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보증해준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 때문이며,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하신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보증을 해 주나요? 할례받은 자로서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유대인의 이점이 무엇이나? (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3:1-2)

- <sup>1</sup> Τί οὖν τὸ περισσὸν τοῦ Ἰουδαίου (그런즉, 유대인의 이점이 무엇이나?)  
ἢ τίς ἡ ὠφέλεια τῆς περιτομῆς;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 <sup>2</sup> πολὺ κατὰ πάντα τρόπον. (모든 면을 통하여 많다)  
πρῶτον μὲν [γὰρ] (첫째는 사실)  
ὅτι ἐπιστεύθησαν 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유대인이다. 그런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적 대우는 이제 끝났으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면 서도 같은 동족들에게 오히려 더 가혹하게 말하고 있다. 율법을 신성시 하고 그것으로 그들과 이방인을 차별해 온 유대인들로서는 바울의 말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로마서의 일차 독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과 지금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특권을 주장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가진 이점은 무엇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유래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물론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하여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낳았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별 언급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 중 하나를 선택했다. 바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다. 밋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 낸 아들보다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은혜로 낳은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임신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 이 태어 나기도 전인 뱃속에서 둘째를 선택하셨다. 사실 쌍둥이 중 누가 먼저 세상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둘째를 약속의 자녀로 점지하셨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야곱이다. 야곱이 선택된 것은 그가 잘났다거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한 아이여서가 아니다.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단 하나, 형 에서보다 한발 늦게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이후부터는 더 이상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신다.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다. 첫 아내 레아로부터 여섯을 얻었고, 그의 동생이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에게서 둘, 레아의 몸종 실바로부터 둘,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빌하로부터 둘, 이렇게 모두 합쳐 열두 명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각기 엄마가 달랐다. 하지만 첫째 부인의 아들이든, 둘째 아내 라헬의 아들이든, 여종의 아들이든 차별없이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 출애굽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었다. 열두 지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차별할 거리들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레아의 아들들이 자신들만이 야곱의 적통을 잇는 아들들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 과정에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비교해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은 자들이다. 불교를 믿던 동양 사람들이나 토속 신앙을 믿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이유로 하나님께 혹독한 벌을 받은 적이 없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매몰차게 훈련하였다. 사실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제국,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을 쥐었던 모든 나라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하였다. 매번 가혹하리만큼 고된 훈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는 독점권마저 빼앗긴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사실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논증한 내용을 듣는 도중에 분명 부아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려고 미리 선택한 거였나?’며 분해하지 않았겠는가?

바울도 그러한 반론이 제기될 것을 모르지 않았다. “유대인의 이점이 무엇이나?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이런 반론이 제기될 것을 미리 안 바울이 먼저 그 질문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런 가혹한 훈련을 받는 동안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지배자가 되었다. 솔직히 말해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했던 로마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도 마뜩찮았는데 거기다 그들이 지켜온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만 누리려는 이방인들이 곱게 보였을 리가 없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기에 그들이 화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도 받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으며, 음식도 마음대로 먹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들을 믿음에 없는 자라고 없선여기기까지 했다.(롬14:1-3참조).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도 당연히 할 말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설교하는 바울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럼 유대인인 우리의 이점이 뭔데? 왜 굳이 할례를 받아 선택된 민족이라는 표식을 하고 다녀야 하는데? 무엇이되었는 하나라도 이방인들과 달라서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받은 바울은 참으로 난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차분하게 논증을 이어간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로마서 9장 1절~5절을 읽어보자.

“<sup>2</sup>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sup>3</sup>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sup>4</sup>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sup>5</sup>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롬 9:1-5).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교회 내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기 원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이뤄왔는데?’ 하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다. 그러면서 은근히 새로운 사람들과 자신은 대우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봉사를 해왔는데 이런 나를 겨우 이 정도로 대해?’ 혹시라도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는가? 만약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과 비슷한 지도 모른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기득권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까? 어떤 때 당신은 그런 생각이 드나요?

#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익 (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3:1-2)

- <sup>1</sup> Τί οὖν τὸ περισσὸν τοῦ Ἰουδαίου (그런 즉, 유대인의 이점이 무엇이나?)  
ἢ τίς ἡ ὠφέλεια τῆς περιτομῆς;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 <sup>2</sup> πολὺ κατὰ πάντα τρόπον. (모든 면을 통하여 많다)  
πρῶτον μὲν [γὰρ] (첫째는 사실)  
ὅτι ἐπιστεύθησαν τὰ λόγια τοῦ θεοῦ.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유대인의 이점, 유대인의 특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그들이 말씀을 맡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맡는다는 것은 유익하고 좋은 일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맡았으니 어깨가 으쓱해지고 남들 앞에서 자랑할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의 말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바울은 세속적 관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으로 인해 비난 받거나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물론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런 세속적인 어려움쯤은 능히 견뎌낼 힘이 생긴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나 세상에 대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야 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사실상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중들에게 선포하는 게 죽을 만큼 큰 고통이었다.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를 선포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었다.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일 모의까지 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했다.

“<sup>18</sup>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피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sup>19</sup> 여호와여 나를 돌아 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sup>20</sup>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나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렘 18:18-20).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기도 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여겼고 그들은 예레미야와는 다른 말을 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귀기울였다. 사실 예레미야가 한 선포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이유는 그 말씀이 인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폐부를 찌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너무도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랬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얘기를 좀 더 들어 보자.

“<sup>7</sup>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다<sup>8</sup>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sup>9</sup>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7-9).

예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받은 치욕과 모욕을 견디다 못해 몇 번이고 말씀 선포하기를 포기하려고 했다. 소귀에 경 읽기도 하루 이틀이지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먹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를 조롱했다. 당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여호와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이미 그의 내면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마음의 부담은 골수에까지 미쳐 그로 하여금 끝내는 다시 입을 열게 만들었고 마침내는 그를 비난과 조롱의 광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말씀을 가진 자의 고난은 구약 시대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었다. 정작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가진 후 당한 수모들을 이렇게 고백했다.

“<sup>22</sup> 저희가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나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나 나도 그러하며<sup>23</sup>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나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 뻔 하였으니<sup>24</sup>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sup>25</sup>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sup>26</sup> 여러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sup>27</sup>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자기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sup>28</sup>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sup>29</sup>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sup>30</sup>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 11:22-30).

바울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가? 이유는 단 하나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점을 말씀을 맡은 것이라 말한다.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적 풍요를 가져다 주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가졌기에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더 많은 훈련을 받았다.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다. 진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렇기에 인간들은 진리이신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기 꺼려한다. 행여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기에 말씀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면 듣는 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편해 하거나 피하려고 하며 심지어 핍박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면 당신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보상이 약속된 세상적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사랑의 언어 이전에 날선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당신은 그 말씀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나요?

## 그래서 어찌자는 것이냐? (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3:3~4)

<sup>3</sup> τί γάρ; (무엇 때문에?)

εἰ ἠπίστησάν τινες, (만약 어떤 이가 믿지 않는다면)

μη ἢ ἀπιστία αὐτῶν τὴν πίσαν τοῦ θεοῦ καταργήσῃ;

(그의 믿음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는 없지 않느냐?)

<sup>4</sup> μη γένοιτο·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γινέσθω δὲ ὁ θεὸς ἀληθής, (하나님은 참되시다)

πῶς δὲ ἄνθρωπος ψεύστης, (그러나 인간들은 거짓되다)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ὅπως ἂν δικαιωθῆς ἐν τοῖς λόγοις σου (당신은 당신의 말씀 안에서 정당성을 얻으시며)

καὶ νικήσῃς ἐν τῷ κρίνεσθαί σε. (그것에 의해 당신이 판단 받을 때 승리하게 하심이라)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무엇 때문에?” (티 가르? τί γάρ;) 이런 바울의 질문은 왠지 느닷없다. 헬라어에서 세미콜론 (;)은 의문 부호다. 이 질문은 밑도 끝도 없는 질문 같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을 이어지는 질문과 합쳐서 해석한다. 즉, 질문은 하나님에 의문 부호를 두번 사용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그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티 가르’ (τί γάρ;)... 이 말을 굳이 번역하자면 “그래서 어찌자는 것이냐?” 정도로 해석된다.

그래서 어찌자는 것이냐? 이 질문은 다음 질문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든다. ‘어떤 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믿음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글 바로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말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이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구약의 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웃 강대국에 비해 우월했던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인 다윗왕과 솔로몬 통치 80년간도 이집트, 앗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등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방 역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없이 전해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다.

이 말에 유대인이라면 응당 화가 날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가끔은 이런 유대인의 항변이 일리있게 들린다. 유대인으로서 억울할 만도 하다. 그들은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보기의 삶을 살았다. 400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산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속박으로부터 속량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사십 년 광야의 삶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통제되고 순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한다.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게 멸망되고, 수도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강제로 메소포타미아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수만큼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강제 혼인을 통해 혼혈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택한 민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양쪽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후에 남유다 사람들은 베벨로니아에게 멸망당했다.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으면서도 정작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은 혼미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며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사 6:9-10).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줘서 백성들이 알아듣게 해야 할텐데 반대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란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진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더 기가 막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하나를 들어보자. 마태복음 20 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온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도 있고, 삼시에 들어 온 사람도 있고, 육시에 들어 온 사람, 구시에 들어 온 사람도 있다. 또 십일시에도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들어 왔다. 십일시는 어두워지기 직전인 오후 다섯시 경이다. 날이 저물어 드디어 임금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하루종일 일한 사람이나 포도원 문을 닫기 직전에 들어 온 사람이나 임금이 동일했다.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세상에서 임금은 차별이 있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품꾼 입장에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그 때 주인의 대답이 바로 ‘티 가르 (τί γάρ)’다. “그래서 어찌라는 것이냐?” 주인은 애초에 품삯을 정해주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포도원에서 나누어 주는 돈은 품삯이라기보다는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한 처사는 공평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처럼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이다. 예수님을 위해 만찬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던 마르다처럼 말이다. 당신은 어떤가?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 오지는 않는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불만은 없는가? 사도 바울은 말한다. “그래서 어찌라는 것이냐?”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공평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균등히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의 무게는 동일하다. 하나님은 행위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위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